

전주시, 추경예산안 2조6998억원 규모 편성

민생안정·지역경제 회복 등 위해 2670억원 증액 시의회에 심의 요청

전주시가 고물가로 신음하는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민선 8기 핵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267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

시는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 등을 위해 당초 예산보다 2670억원이 증액된 총 2조6998억원 규모의 민선 8기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전주시 의회의 심의를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유가·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등 시민 생활 안정과 민선8기 공약 등 역점사업 추진에 초점이 맞춰졌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55억원(11.54%), 특별회계가 115억원(5.22%) 늘어났다.

시는 민선 8기 핵심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전주종합경기장 부지개발 야구장 철거 17억원 △전주역사 개편사업 추진 11억 8000만 원 △전주고도 지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5억원 △전주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및 산단 활성화 용역 6억원 △인주·전주 통합 효과 및 실효성 분석 용역 1억 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구상 용역 4000만 원 등을 편성했다.

코로나19와 관련, △코로나19 생활지원비 323억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40억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12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 지원 154억 원 △긴급복지 지원 5억원 △생계급여 18억원 △노인일자리 28억원, 운수업계 종사자의 소득안정을 위해 △노선버스 기사 한시 지원 54억원 △일일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및 한시지원 44억원 △전세서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19억원이 추가로 편성됐다.

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안정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특별보증 등 이차보전 지원 3

억 원 △골목상권 드림 축제 2억 원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2억 원을 편성했다. 청년층의 자립과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서는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 13억 원 △창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9억 원 등의 예산을 짰다.

주요 현안사업 추진 예산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112억원 △전주권 소각지원센터 위탁운영 9억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35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및 공원 매입 125억원 △도로유지보수 10억원 △공공유지보수 8억5000만원 △가로수 유지관리비용 4억5000만원 등 총 607억원이 편성됐다.

이밖에 △기술창업 성장지원센터 건립 19억원 △전기차 구매지원 110억원 △수소 버스 도입 보조 40억원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 40억원 △팔복동 빈집밀집구역 재생 23억원 △완산철봉 한빛마루 공원 26억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60억5000만원 △서곡교 보수·보강 공사 15억원 등

국·도비 확보 증가에 따른 대응 지원 사업 예산으로 1,033억원이 편성됐다.

시는 국·도비 보조금 868억원, 세수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 1153억원,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55억원, 전년도 잉여금 73억원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확보해 추경 재원을 마련했다. 또, 코로나19의 여파로 취소·변경된 행사 사업과 집행잔액 등 205억 규모의 세출예산 조정도 병행해 재원을 확보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이날부터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지는 전주시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황관주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장은 “물가상승과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워진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민생경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했다”면서 “민선 8기 새로운 변화의 기대에 부응하고 시민과 함께 전주의 큰 꿈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별과함께, 다가서당’ 조성 착착

전주시, 연말까지 주민 위한 생활거점시설

전주시 다가동에 주민들의 주차 불편 해소와 교육, 공동체 활동을 위한 생활거점시설이 들어선다.

전주시는 올 연말까지 지난 2019년 국토부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시범 선정된 ‘별과함께, 다가서당’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새로 조성하는 시설을 주민들을 위한 디지털 커뮤니티시설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별과함께, 다가서당’은 매년 불전주국제영화제 기간 동안 영화계 스타(별)들이 찾아오는 지역성을 나타내는 ‘별과함께’와 ‘다가동에 있는 서당’이라는 의미를 결합해 붙여진 이름이다. 또, ‘다가동 주민에게 다가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부지에 들어서는 다가서당은 총사업비 17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520㎡, 지상 2층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건물 1층은 지역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13대 규모의 공용주차장으로 조성되고, 건물 2층은 주민들의 배움과 소통의 공간인



다가서당 조감도

디지털 배움터로 조성되며, 2층 옥상에는 지역주민과 이용자들이 휴게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원형태로 조성해 지역내 명소로 거듭나게 할 계획이다.

디지털 서당은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디지털 배움터·소통·체험 공간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과거부 지원을 받아 이곳에서 주민들의 배움과 소통, 인근 객리단길 상인들의 홍보 등에 필요한 연 10억 원 규모의 프로그램 운영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부터 다가서당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운영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시 덕진보건소, 3세대 원숭이두창 백신 접종기관 지정

전주시 덕진보건소가 전북지역 원숭이두창 백신 접종기관으로 지정됐다.

덕진보건소는 6일 전북지역 원숭이두창 지정의료기관인 전북대학교병원의 치료 병상 의료진 3명을 대상으로 3세대 원숭이두창 노출 전 예방접종을 실시했다.

국내 원숭이두창 예방접종은 노출 전 접종과 노출 후 접종으로 구분되며, 노출 전 접종은 △치료병상 의료진 △진단검사 실험실 요원 △역학조사관 등 원숭이두창 확진자와 직접 접촉할 확률이 높은 직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노출 후 접종의 경우 역학조사 결과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중위험’ 이상 노출자 중 노출 후 14일 이내인 접촉자에 한해 시행될 예정이다.

덕진보건소 관계자는 “원숭이두창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등 부작용을 위해 1~7일간 질병관리청 문자 링크를 통한 자가 체크리스트 방법으로 이상반응 능동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추석 명절 장보기는 전통시장에서 하세요”

전주시, 장보기 행사 전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가 전개된다.

우범기 전주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공무원들은 출연기관 직원, 자생단체 회원 등과 함께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남부시장과 신중암시장, 모래내시장 등 전통시장에서 명절 음식과 선물을 구매하는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진행되는 장보기 행사는 부서별 장보기 장소와 일정에 따라 전통시장을 방문하게 된다.

전통시장들도 상인회별로 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한시적으로 무료 개방하고, 자체 할인판매 행사도 벌인다.

남부시장변영회는 오는 8일까지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앞에서 견어물과 버섯, 과일, 잡곡 등 추석 명절 선물세트를 판매하고, 중앙상가도 의류점포 특별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을 지류와 모바일뿐만 아니라



우범기 전주시장을 비롯한 전주 공무원들은 출연기관 직원, 자생단체 회원 등과 함께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남부시장과 신중암시장, 모래내시장 등 전통시장에서 명절 음식과 선물을 구매하는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충전식 카드형으로 지난 29일 새롭게 출시했다. 충전식 카드형의 경우 소비자의 보유카드를 온누리상품권 앱에 등록하고 충전 후 상품카드 결제 방식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할인율 10%, 월 100만 원 한도로 사용할 수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통시장 상인들은 명절 대목을 앞두고도 코로나19

재확산과 고물가로 인한 소비위축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추석 명절을 준비하는 시민들께서 가까운 전통시장을 찾아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데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시 대학생 정책협력단 회의 가져

전주시가 지역 대학생들과 민선8기 주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소통에 나섰다.

시는 6일 전주시사회혁신센터에서 전북대학교·전주교육대학교·전주대학교·예수대학교·전주비전대학교·전주기전대학교 등 전주지역 6개 대학의 총학생회 임원으로 구성된 ‘전주시 대학생 정책협력단’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제3차 전주 대학생 정책협력단 회의’를 개최했다.

민선8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날 회의는 향후 추진될 대학생 관련 정책 사업에 대해 대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대학생 정책협력단 위원들은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

기 위한 청년정책과 부서 신설 △전주시 지역 인재의 전주기업 취업을 돕기 위한 전주 기업반 운영 △대학생들이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전주형 일자리 창출 공약 사업의 추진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지역 6개 대학 간 협약사업인 ESG 공동실천 사업의 일환으로 9월 중 추진 예정인 ‘월레이 헌혈 운동’ 등 전주시와 대학 간 상생협력을 통한 대학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는 전주시 청년의원을 대표해 김세혁·최서연 전주시의원도 참석해 대학생 정책협력단 위원들과 청년정책 발전 방향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김재훈 기자

전주시설공단 마을버스 ‘바로온’ 전북적십자사에 특별회비 전달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회장 이선홍)는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운영하는 마을버스 ‘바로온’이 전북적십자사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성금은 마을버스 운영부 운전원들이

간식비 등을 아껴 운전원 휴게실에 설치한 성금함을 통해 모금했으며, 울초 전북적십자사에 전달한 성금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기부이기도 하다.

마을버스 ‘바로온’은 2020년 11월부터 전주 내 교통 취약 지역에 사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현재 버스 12대, 승합차 4대를 운행중이다.

/김재훈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